



김홍석, <침묵의 고독-가정주부> 2019, resin, foam rubber, clothes, fabric, 110(h)×94(w)×105(d)cm

이수 플레이어리스트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 음악 공유해 줘!

지금 이 순간, OTT

일상의 활력, 공감 콘텐츠 추천

이수 튜브

내가 클릭한 인생 멘토

이수 테이블

똑똑한 문어 스토리

스페셜 리포트

업무 성과와 동기 적합성

ISU PLACE

김홍석 개인전 <속옷을 뒤집어 입은 양복과 치마를 모자로 쓴 드레스>

CONTENTS



04 Focus & News

12 커뮤니케이션 Talk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16 이수 플레이리스트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 음악 공유해 줘!
이원준 사원(이수스페셜티케미컬 안전환경팀)
김중윤 사원(이수엑사캠 물류지원팀)
이상윤 사원(이수건설 어플티움L-CO2현장)

20 이수타그램

사진과 해시태그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들
김영민 사원(이수화학 안전환경2팀)
이희원 사원(이수시스템 경영지원팀)
김민정 사원(이수엑사캠 관리팀)



24 지금 이 순간, OTT

일상의 활력, 공감 콘텐츠 추천
박준영 사원(이수스페셜티케미컬 기획팀)
권지용 과장(이수건설 경영기획팀)

28 이수튜브

유튜브의 바다에서 새로 만난 나
멘토의 어깨 위에서 멀리 보는 세상
내가 클릭한 인생 멘토

34 이수 테이블

스토리쉐프가 차려내는 식탁
어족의 현자, 바다의 카멜레온
똑똑한 문어 스토리



42 스페셜 리포트

이수인의 심폐 확장 이슈
인지심리학으로 풀어보는 인사
업무 성과와 동기 적합성

52 ISU PLACE

김홍석 개인전
<속옷을 뒤집어 입은 양복과 치마를 모자로 쓴 드레스>

57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컬러링 응모작 소개

58 컬러링 테라피 및 엽서

COVER STORY

김홍석 작가의 작품 <침묵의 고독-가정주부>
'뒤엉킴(entanglement)'이란 개념으로
우리 시대의 복잡한 다면성을 반영하고
오늘날 미술의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
김홍석 개인전 <속옷을 뒤집어 입은 양복과
치마를 모자로 쓴 드레스>전이
11월 10일까지 스페이스 이수에서 개최된다.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
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
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23년 가을호 통권 114호

발행일 2023년 10월 13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김현중 02-590-6819
사보기자 이수화학(김찬희 안인찬) 이수스페셜티케미
컬(이하연·이정구) 이수페타시스(이준경·한
수진) 이수건설(한수진) 이수시스템(서준혁)
이수창업투자(김경문) 이수엠지스(양예슬)
이수엑사캠(박성호) 이수AMC(이홍휘)
제작디자인 LEE & LEE work shop 기획실장 이신우,
디자이너 유선영
인 쇄 LEE & LEE work shop

※이수그룹 사보는 친환경 FSC인증 펄프로 만든 용지를
사용해 제작합니다.

FSC인증은 국제산림관리협회의가 만든 친환경 인
증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
부여됩니다.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이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온산공장에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 번째 류승호 대표(이수스페셜티케미컬), 네 번째 김학봉 대표((주)이수)

김상범 회장
현장 경영

이수스페셜티케미컬 & 이수앱지스 현장 방문,
경영현장 직접 행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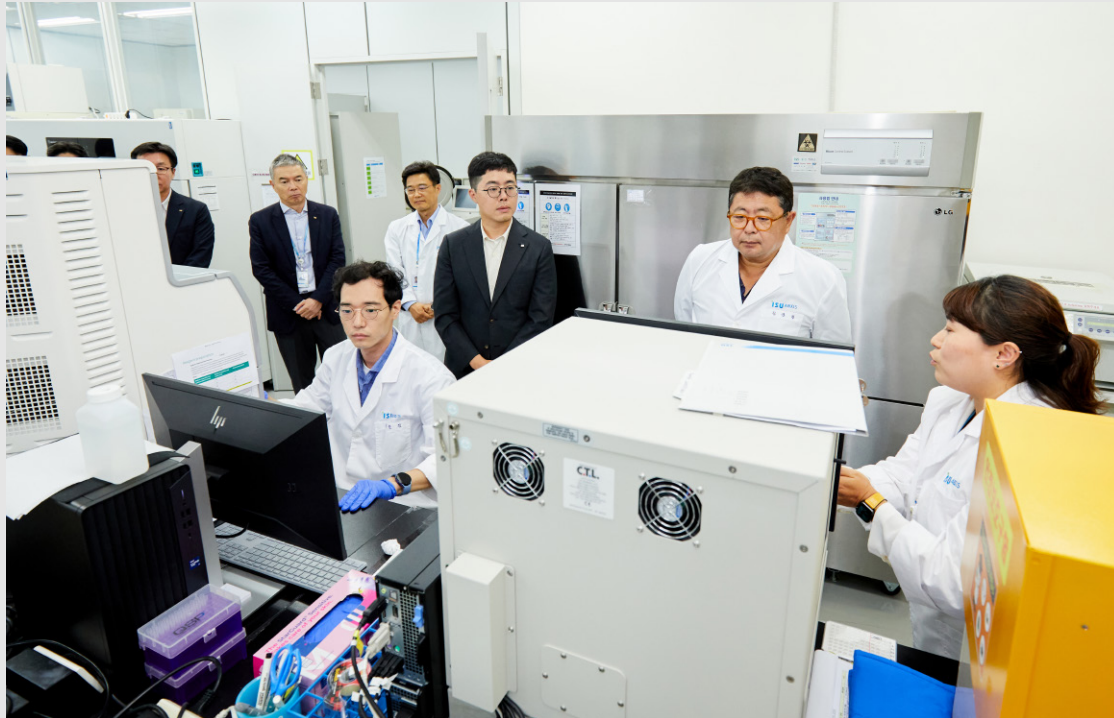
지난 9월 8일 김상범 회장은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온산 공장에 방문했다. 이날 이수화학의 NP공정을 포함해 22년 10월경 준공된 Li2S(황화리튬) Demo Plant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지난 2022년 전고체 전해질 원료인 Li2S 데모 설비 준공 이후, KBR과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이수앱지스 판교 사무소에 방문해 경영진으로부터 희귀질한 신약 개발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달된 내용으로 신약 개발 전략에 대하여 경제적인 개발비용, 높은 성공 가능성, 개발 역량 등 전략에 대한 타당성 및 타깃 선정 방법과 인력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안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연구시설 내의 최신 장비에 대한 소개 및 각 기기의 시연, ISU203해외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확인하는 투어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동민 대표(이수화학), 김세민 전무, 김상범 회장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은 이수엠피스 판교 사무소에 방문해 이수엠피스 경영진으로부터 회귀질한 신약 개발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연구시설 최신 장비 소개 및 ISU203해의학회 발표 연구결과를 확인하는 투어를 진행했다.



(주)이수

창립 20주년 기념 워크숍 행사



(주)이수에서는 지난 9월 14~15일 이틀간 창립 20주년을 맞아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 김상범 회장이 참석, 축사를 통해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 및 각사 대표이사의 축하 영상이 있었으며 이수그룹 발전에 힘써주고 장기근속 및 술선 수범으로 타 직원들에게 모범이 된 직원들에게 포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수화학

동의과학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이수화학은 동의과학대학교와 전문 인력 양성 및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장 중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과 산업체의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무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이수화학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지향하는 대학으로 넓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SG 경영의 모범을 보였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에서 현장 중심의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화학

UOP 엔지니어 방문,
Molex 교체 공사
현장 확인



지난 7월 이수화학의 온산 공장에 UOP사의 엔지니어가 방문하여, Molex Sieve 교체를 위한 현장 확인을 마치며, 1995년부터 사용해온 기존의 Molex Sieve를 26년 만에 교체하는 공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를 통해 생산 안정화와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한 대응이 기대된다.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4공장
안전기원제 개최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8월 24일 4공장 안전기원제 행사를 진행하였다. 김성민 부회장 및 최창복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40여 명의 임직원, 노동조합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안전기원제는 기원제 의미 설명, 헌주 및 재배, 무재해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4공장의 안전한 생산과 좋은 품질의 생산을 위해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기원을 드렸다는 데에 깊은 의미가 있다. 4공장은 23년 상반기 설비 증설 및 이설 이후 7월부터 본격적인 양산 가동 진행 중에 있다.

이수건설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
10-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이수건설은 지난 8월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발주한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 10-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의 종합평가낙찰제 입찰 결과 최종 시공사(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 AC10-2BL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6층, 10개동 577세대, 연면적 26,223평 규모이며,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단독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 자체 개발사업이다. 마곡 서남부 지역에 시민들의 주거공간을 확충하고 첨단산업단지의 배후 주거 단지로서 마곡지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친환경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수시스템

창립 27주년 기념 행사



이수시스템은 8월 1일 창립 27주년을 맞아 창립기념행사를 열었다. 당일 오전 7시부터 푸드트럭을 통해 커피, 다과, 도넛 등의 간식을 나눠주며 활기차게 창립기념일의 아침을 시작했고, 오후에는 근속, 성과, 비전 등 각종 포상 대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어 기쁨을 나눴다. 이후 퀴즈 프로그램과 함께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나누는 것을 끝으로 행사가 종료되었다. 1996년 창설 이래 HR솔루션, 스마트플랜트, 클라우드 등 혁신IT사업에 부단히 도전하고 있는 이수시스템은 대한민국 IT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종합IT솔루션 회사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수창업투자

대구 이수-에코 에이비비(ABB) 벤처투자조합 결성



이수창업투자는 지난 8월 8일 '대구 이수-에코 에이비비(ABB)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총회를 개최했다. 대구광역시가 출자 공모 조성한 이 펀드는 약정총액 120억 원으로 (주)에코프로파트너스와 공동 운용하며 대구지역 ABB (AI/BlockChain/Big Data) 유망 창업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할 뿐만 아니라 ABB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총회에 앞서 지난 4월 운용사인 이수창업투자자와 에코프로파트너스 및 관계 기관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참석하여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수앱지스

김상범 회장 판교사무소 방문, 전략 보고 및 연구시설 투어 진행



지난 8월 31일 김상범 회장은 이수앱지스 판교 사무소에 방문해 황엽 대표이사, 박상호 사업본부장, 박장준 신약본부장, 정수현 기획관리본부장으로부터 희귀질환 신약 개발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수앱지스 경영진은 희귀질환 신약 개발 전략에 대하여 경제적인 개발 비용, 높은 성공 가능성, 개발 역량 등 전략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드리고, 타깃 선정 방법과 인력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안에 대해 보고를 하였다. 보고 이후에는 연구시설 내의 최신 장비에 대한 소개 및 각 기기의 시연, ISU203 해외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확인하는 투어를 진행했다.

이수엑사캠

창립 22주년 기념 행사 진행



이수엑사캠은 9월 1일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여 창립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 서기호 사장은 회사의 성장에 힘써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회사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행사는 저녁 만찬과 함께, 지난 1년간 이수엑사캠 발전에 힘써주고 장기근속 및 술선수범으로 타 직원들에게 모범이 된 직원들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되었다.(근속상/20주년-유상현 부장, 공로상-윤성준 과장, 모범상-조성우 과장) 서기호 사장은 이수엑사캠 임직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더욱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행사는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수AMC

핸디즈와 동반성장을 위한 MOU



이수AMC는 생활형 숙박시설 위탁운영 국내 1위 스타트업 핸디즈와 지난 29일 전략적 제휴(MOU)를 체결했다. 2016년 설립된 핸디즈(Handys)는 2023년 8월 기준 전국 3000여 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2만여 개 객실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수AMC와 핸디즈는 양사의 운영 및 관리 노하우로 건물종합관리 선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략적 MOU를 통해 건물종합관리에 있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설 및 건물 관리(FM, Facility Management)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다져간다는 계획이다.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가 있어 푸근합니다.

이 코너는 이수라는 큰 울타리 안에 동지를 둔 이수 가족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어슷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밀어주고 끌어주며 등 다독여 함께 하는

푸근한 동행의 통로에서 마주하는 이들과 손 내밀고 그 손, 잡아주는 자리입니다.

Q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 추천과 운동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은 과장
(이수페타시스 재경팀)

A

강혜진 사원
(이수엑사캠 글로벌영업팀)



이상은 과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고 퇴근하면 피곤해서 꼼짝도 안 하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볍게 시작할 운동 좀 추천해 주세요.

강혜진 사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요즘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컨디션은 어떠신지요?



이상은 과장

운동을 해야 체력이 강화되어 피로함도 덜 느낄 텐데 약소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는 듯하고요.

강혜진 사원



그럼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강도를 늘려가며 하시면 좋은 운동일듯해요.



이상은 과장

재미를 느끼면 훨씬 열심히 하게 될 텐데 테니스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혜진 사원



라켓으로 공을 칠 때마다 하루의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치다 보면 상대편 공이 어떻게 날아오는지 따라 전략을 세워야 해서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잡생각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돼서 좋아요.



이상은 과장

테니스를 권해 주시니 좀 솔깃하네요. 테니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마음 준비 같은 것도 있을까요?

강혜진 사원



운동을 하나의 일로 생각하게 되면 이런저런 핑곗거리를 찾으며 피가 나지만, 취미로 여긴다면 실력을 떠나 재미가 생기고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ㅎㅎ 운동 기록도 남겨가며 뿌듯한 성취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비슷한 운동 취미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동호회 가입도 서로 격려해 주고 운동 의지를 북돋아 준다는 점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Q

입사한지도 제법 되고 보니 제 업무 영역도 넓어지고 있네요. 각각 다른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업무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서준혁 사원
(이수시스템 경영혁신팀)

A

최재훈 과장
(이수페타시스 인사노무팀)



서준혁 사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입사 선배님을 모시고 저의 고민을 나누게 되어 각별한 마음입니다.

최재훈 과장



네, 저도 반갑습니다. 팀 내에서 맡은 일에만 몰두하다가 후배 사원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게도 의미가 큰 거죠. 어떤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서준혁 사원

네, 점점 늘어나는 업무 스케줄 관리에 신경이 쓰입니다. 가끔 놓치는 게 생기면 어떡하나 싶고요.

최재훈 과장



아, 그럴 시기가 있죠. 저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바탕화면에 달력 형 엑셀 파일을 저장해두고 기록을 합니다.



서준혁 사원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전 고작 폰 메모장에 그때그때 체크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엑셀파일이면 수정도 추가도 가능하고 그것 참 좋은 팁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최재훈 과장



날짜별로 업무 일정을 상세하게 기입하고, 주별/월별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는 별도 공간에 기입하여 관리합니다. 완료된 업무는 빨간색 음영으로 구분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매번 엑셀 파일을 열기 귀찮기도 하지만, 업무 기록이 쌓이게 되면 시기별로 해야 하는 업무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준혁 사원

바로 시도해 봐야겠어요. 혹시 참고할 만한 다른 팁이 있으면 더 알려주세요.

최재훈 과장



요즘은 팀즈나 모바일 앱으로도 스케줄 관리가 쉽게 되는데, 여러 방법을 활용해 보고 본인이 가장 편한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준혁 사원

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삶에서 소중한 날에 매년 똑같은 치킨, 케이크 선물을 기프트콘으로 주고받는 게 진짜 무의미해요. 생일선물로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

양예슬 사원
(이수앱지스 경영지원팀)

A

송민혁 사원
(이수시스템 경영지원팀)



양예슬 사원

안녕하세요? 코로나 격리 이후에 과거에 별 의식 없이 생활하던 것들의 소중함도 조금씩 회복 중인데요.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선물이에요.

송민혁 사원



듣고 보니 그렇네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선물이라는 게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건 맞아요.



양예슬 사원

저도 요즘엔 그 많은 생각을 생략하는 차원에서 기프트콘도 사용하지만 그런 일이 잦다 보니 좀 회의적이에요. 혹시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송민혁 사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저에게 어울릴만한 옷이에요! 패알못이라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출근합니다.



양예슬 사원

아하! 그 마음은 공감하지만 선물을 하는 쪽 입장이라면 쉽지 않겠는데요. 옷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종류랄까... 맘에 두고 있는 건요?

송민혁 사원



저게 찰떡같이 맞는 옷을 선물받고 싶어요! 패션에 관심을 끊은 지 어언 30년... 이제 백화점 가는 것도 큰 결심을 해야 하는데, 용기를 냈다가도 어울리는 게 뭔지 몰라서 망설이다 발길을 돌리곤 합니다. 점점 자신이 없어진 거죠.



양예슬 사원

어언 30년이라니 아예 관심이 없으신 거네요. 그리고 옷 선물이 가장 어렵겠어요. 답을 듣다 보니 왜 기프트콘인지 이해가 되네요. 선물은 결국 받을 사람에게 대한 애정과 헤아림이 필수라는... 답은 못 얻었지만 좋은 깨달음을 주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빨리 여자친구가 생겨서 멋진 패션 스타일을 찾게 되길 기대합니다.

송민혁 사원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랄 뿐이죠.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음악 공유해 줘!

음악을 듣는다는 건
 다른 수많은 취미와 구별되며 어떤 예술 장르보다도 직접적이다.
 한 곡의 음악으로 나에게 오는 위로와 고무, 때론 먹먹한 감동으로
 심신에 안마를 받는 듯 그 저릿한 순간...
 우리는 음악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 큰 신세를 진 바 있어
 다른 누구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기도 한다.
 이 코너는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
 간접경험도 진하디 진하다.



한 곡의 음악이 데려다주는 과거로의 여행

이원준 사원 |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안전환경팀

체감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입사한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 저는 퇴근 후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테니스, 피트니스 등 여러 가지를 해보았지만, 가장 힐링이 되는 시간은 노래를 들으면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근 강아지 산책 시 듣기 좋은 곡들을 찾아 플레이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벽 가로수길은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발매된 노래로 입학 초기 놓고 난 뒤 친구랑 새벽에 집까지 걸어가면서 친구가 처음 들려준 곡이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내다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이 노래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듣다 보니 그 시절 이 생각나는 노래라서 소개합니다.

comment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혼자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퇴근할 때도 듣기 좋은 노래이니 한 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벽 가로수길
백지영 (with 송유빈)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 우연히 봄**
로꼬, 유주
- 초대**
멜로망스
- 너에게 (To You)**
엔플라잉 (N.Flying)
- 여름밤에 우린**
스탠딩에그 (Standing Egg)
- Love Story**
불빨간사춘기

피아노 도둑 (piano dorobou)

아마자라시(amazarashi)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백유화
안예은, 우예린

철학적인 이야기 잔잔하게 풀어내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

김종윤 사원 | 이수엑사캠 물류지원팀

올해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시간을 꽉꽉 채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심에는 골프 레슨, 저녁에는 스피닝 운동, 주말에는 가족 또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남은 시간에는 독서도 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은 3분가량 혼자 음악 듣는 시간이 가장 좋을 때도 있는 것 같네요.

아마자라시는 일본의 유명한 얼굴 없는 가수인데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좋아서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전, JPOP을 좋아하는데, 일본인 친구가 소개해 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웠던 유학 생활 중 가장 즐겨 들었던 노래입니다. 처음 도입부가 대중들에게 대화하듯이 시작하는데, 해당 부분이 호소력이 짙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나는 도둑이야, 내 이야길 들어봐 어차피 다들 흘러들고 말 술자리의 가십 집중하지도 말고 진지해지지도 마. 이제 와서는 쓸모 없어진 꿈이야 기니까”

comment

아마자라시는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철학적인 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어내는 가수입니다. 한편의 동화 같으니 여러분들도 꼭 한 번 들어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눈물이 났던 기억

이상윤 사원 | 이수건설 어프티움L-CO2현장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여럿이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싶어져서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발톱이 다 빠질 정도로 뛰다 보면 숨이 턱까지 오르고 고통스럽지만 시원하게 날아가는 공, 득점할 때 그 상쾌함... 헬스와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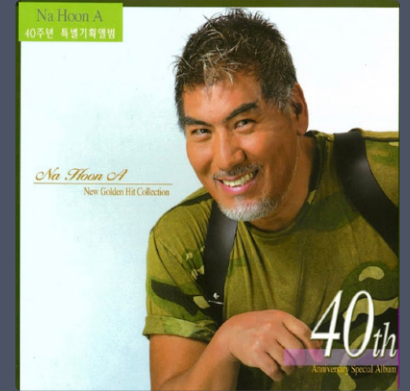
건설업 특성상 고향과 먼 타지에서 근무를 합니다. 한번은 코로나에 걸려 격리 중에 숙소에서 부모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만 하고 끊었습니다. 격리가 끝나고 출근길에 이 노래를 들었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눈물이 났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comment

‘바람 불면 감기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매 순간 저만 생각하고 걱정하시는데 컷등으로도 안 들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도 집에 전화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홍시

나훈아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Don't Touch
Dan Farber



Everything Black (feat. Mike Taylor)
Unlike Pluto



Spicy
Aespa(에스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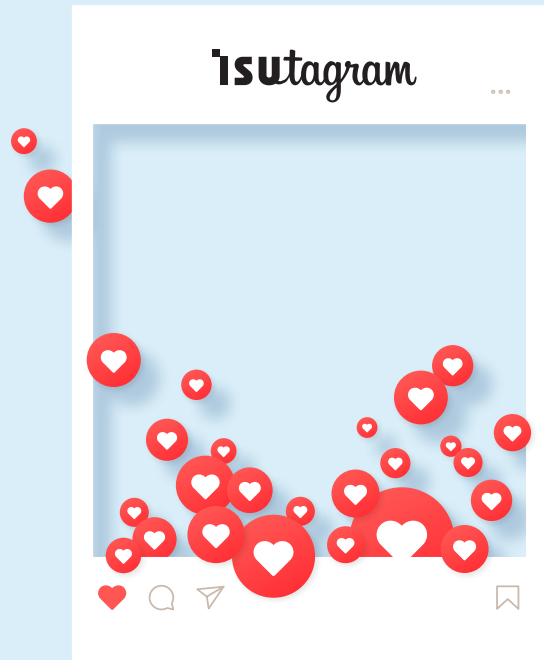


Kitsch
IVE(아이브)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수염의 아내
LE SSERAFIM(르세라핌)


이수 가족 한 개인의 빛나는 순간 주변 모두가 함께 환하다!



이수타그램은 그동안 호응을 보여온 이수인의 소통 코너이다.
계절감 담긴 사진이나 시사성 있는 이미지, 공유하고 싶은 개인적 관심사 등 혼자 간직하기 아까운 삶의 순간들을 넌지시 공개하는 이수 가족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다.
이수타그램은 스토리가 담긴 이미지를 공유하며 이수인의 자유롭고 활발한 내적 보물과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한다.
내가 갖지 못한 순간, 혹은 내게 없는 추억이라도 이수 가족 내 누구의 것이든 나의 것으로 환하게 맞아들이는 선한 교류의 장이다.


김영민 사원(이수화학 안전환경2팀)
...





길었던 여름을 마무리하며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더욱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더위가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네요.
이 더위가 다 가기 전에 유독 많은 추억이 담겼던 저의 여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갔었던 하계휴양소는 무더위 속에서 가장 시원했던 기억 인데요. 입사한 이후 동기들과 함께 한 첫 휴양이었기에 더욱 행복했던 것 같네요 ㅎㅎ
평상 옆에는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벌레와 함께 했던 고기파티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웃음소리 가득했던 그 밤은 제게 시원한 여름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여름을 보내셨나요?
기억에 남는 순간을 안고, 다가오는 가을에는 더 행복한 순간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름 #추억 #하계휴양소 #동기



이희원 사원(이수시스템 경영지원팀)



반려견과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는 하루

저는 14살 된 강아지 “둥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 오랜만에 한강공원으로 함께 나들이를 갔다 왔어요.
 둥이는 나이가 들어서 너무 무더운 날씨에는 산책하는 것을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선선해져서 그런지 여기저기 신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14년을 함께한 둥이가 점점 늙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는데, 활기찬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4살이나 된 노견이기 때문에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지만 아직 제 눈에는 아기 같은 둥이랑 더 많은 추억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수 가족 여러분들도 주변의 소중한 가족, 친구, 반려견과 소중한 추억을 쌓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둥아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하자



김민정 사원(이수엑사캠 관리팀)



한여름 밤의 꿈 - 장호 비치, 캠핑 & 스노클링

올여름 저는 너무나 가보고 싶었던 “3대가 덕을 쌓아야 예약할 수 있다”는 장호 비치 캠핑장으로 물놀이 겸 캠핑을 즐기고 왔어요.
 스노클링으로 유명한 장호항, 장호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스노클링과 캠핑을 마음껏 즐겼답니다!
 물놀이하고 라면 먹고, 파도 소리도 낭만적인 바다 풍경을 즐기다가 기도 구워 먹고 한껏 신이 났었죠.
 저녁에는 캠핑의 백미라는 불멍도 했는데 해수욕장 바로 근처라 불꽃놀이하시는 분들이 많아 불꽃놀이를 무료 관람(?)까지...
 무더운 여름에 캠핑은 사실 하기 힘든 취미지만 성취감 또는 낭만을 한번 맛보면 빠져나오기 힘든 취미지요 ㅎㅎㅎ
 여러분들도 캠핑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길!

#사진전시회 #어노니머스프로젝트 #필름속일상 #힐링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곁에 놓치지 가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카카오톡 ID : creativekeym / 이메일 : hjkim1@isu.co.kr

지금 이 순간, OTT

(Over-the-top)

NETFLIX



TVING



Wavve



Disney+



WATCHA



그대는 내면 부자 <문화 예술러> 일상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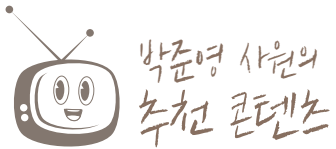
하늘, 새소리 구름... 높은 것은 더 높게
낙엽, 물소리, 안개... 낮은 것은 더 낮게
내려앉는 계절
우리 맘도 양방향 따로 향한다.

업무공간에서는 목표를 향해 마음을 다잡고
업무 외 공간에서는 정신의 허기를 채울
고농도 문화 예술로 향한다.

이번 가을호에도 어김없이
지성과 감성을 충전할
세상의 모든 작품을 엄선하여 빠져본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준영 사원

(이수스페셜티케미컬 기획팀)

최근엔 운전이 맛을 들어 주말마다 여자친구와의 드라이브에 푹 빠졌습니다. 아직은 제 차가 없어 주말마다 아버지와 저 사이에 차키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 물고 갈 곳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대부도 방어머리 해변가의 카페 골목입니다.



NETFLIX 피키 블라인더스

시즌 6개 | [18+] | 드라마, 영국작품, 시대물

가족애를 바탕으로 각자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범죄 드라마

범죄 관련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이라 브레이킹 배드, 베테 콜 서울 이후 '이제 뭘 보지?' 하고 고민하던 차에 마침 영국 출장 일정이 잡혔습니다. 출장 준비 차원에서 영국식 악센트에 좀 익숙해지고자 평소 찜만 해두고 안 보던 영국 배경인 이 작품을 몰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조직에 관한 시대극이라 그런지 기대했던 영국 억양과는 사뭇 달라 어려모로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작품을 단순 재미만으로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체 누가 착한 놈이고 나쁜 놈인지, 누가 가장 나쁜 놈인지 도저히 가능하기 힘들 정도의 무지막지한 사건이 매 에피소드마다 줄줄이 일어나 대체 이번엔 일이 어떻게 풀려갈지 숨죽이며 지켜보는 쫄깃한 맛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범죄 이전에 끈끈한 가족애를 바탕으로 각자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이 여태 봐왔던 범죄 드라마와 <피키 블라인더스>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가족 모두가 '피키 블라인더스' 소속임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매번 큰일이 터질 때마다 가족회의를 열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모습이 참 화목하니 보기 좋더군요.

추가 추천 콘텐츠



WATCHA 오피스

시즌 9개 | [15+] | 코미디

<오피스>는 어느 제지사 지점 사무실 직원들의 다이내믹한 회사 생활을 보여주는 모큐멘터리 시트콤입니다. 복잡한 사내연애 삼각관계부터 기상천외한 사(무)실 내 올림픽 등 뇌를 비우고 깊은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미국 시트콤의 경우 코믹한 분위기 속에서 대사 한 마디마다 "와하하갈갈갈!"하는 방청객의 웃음소리로 물입을 방해했는데, 모큐멘터리 특유 감성으로 장면과 대사만으로 웃음을 선사해 줘 뇌톡스(두뇌 해독) 용으로 편안히 볼 수 있습니다.



권지용 과장

(이수건설 경영기획팀)

저는 다음 달에 있을 하프마라톤 참여를 위해 좀 더 피치를 올려 달리고 있습니다. 무더웠던 지난여름 흘린 구슬땀이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엔 특히 먹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네요. 영양제부터 식단까지 잘 챙겨서 생애 첫 하프마라톤 잘 뛰고 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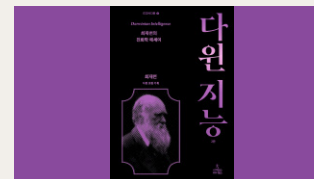
NETFLIX 어른 김장하

2부작 | [All] | 다큐시리즈, 사회&문화 다큐멘터리

돈에 굴복하지도, 사람을 굴복시키지도 않는 참여인의 품격

<어른 김장하>는 2부작 다큐멘터리로 한 지역 방송사에서 제작, 백상예술대상에서 교양 작품상을 받으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평생 한약방을 운영한 김장하 선생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될만한 어른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독특하고 극적인 서사가 있지는 않지만 선생의 모습에 빙긋이 웃음 짓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대하는 자세에 감탄하며 그의 일생을 가만히 따라가 보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입 밖에 내는 것에 극도의 불편함을 느끼는 선생을 취재하며 찼찼매는 나이 지긋한 노 기자의 어려움을 관찰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돈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을 굴복시키지도 않으며 평생 옳다고 생각하는 철학을 울곧게 지켜온 선생의 고집을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선택, 고민의 순간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신만의 길을 그저 걸었다는 선생의 겸손에 나의 삶의 모습을 비춰보기도 합니다. 김장하의 일생을 통해 어른으로서 가져야 할 품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추가 추천 콘텐츠



e-BOOK 다윈 지능

사이언스북스 | 최재천의 진화학 에세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다윈의 진화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이 자연계 생물들의 진화 과정을 둘러싼 이야기로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출근 길에 보이는 잡초 한 포기도 새롭게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행동생태학과 진화생물학 분야를 개척한 최재천 교수의 저술로 시대의 사상가이자 과학자인 다윈의 진화론을 에세이로 가볍게 풀어냈다고 하니 이번 가을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익숙하되 낯선 흥미로운 세계로의 여행이 될 듯합니다.

유튜브의 바다에서 새로 만난 나 멘토의 어깨 위에서 멀리 보는 세상 내가 클릭한 인생 멘토

우리 인간은 사람(人) 사이(間) 존재이다.
사이에 놓인 간격을 좁혀
앞서거나 뒤서거나
물 주기도 하고 물들기도 하는 사이...

내가 닿고 싶은 저~기로 성큼 앞서 걸어가
그욕이 깊어지고 지경을 넓은 이를 만나
내 인생의 멘토로 삼는다.
그 넓고 우뚝한 어깨에 올라 세상을 바라볼 때
혼자 종종걸음 보폭의 답답함을 썩 물리치고
환하다. 그리고 길이 보인다.

삶의 균형을 위해
넓이보다 깊이, 부피보다 무게를 생각하는 이 계절,
5인의 멘토가 전해주는 깨달음으로
몸과 맘의 조화로움 얻게 되기를...



위성시각으로 조망하는 자연과 인간 생태계를 통한 삶의 이정표

최재천의 아마존

구독자 62.2만 명

시인을 꿈꾸던 과학자의 깊고 따뜻한 시선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종합으로 넘나드는
통섭을 통하여 인문학적 통찰을 전한다.
절로 가능되는 방대한 독서량이 묻어서 온다.

평생 자연에 유심(有心) 해 온 동물행동학자로
10여 년간 중남미 열대를 누비며 동물 생태 탐구,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명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전한다.

재생목록 - 다윈 지능 / 썬 풀어 드림 /
전자적 관찰자 시점 / 알면 사랑한다 /
내공왕 정주행 등이 있다.



»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역임
현 이화여자대학교 예코과학부 석좌교수
저서: 통섭의 식탁 /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
다윈 지능 / 열대예찬 /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 / 과학자의 서재 등



돌샘에 고인 인문학 샘물 철학적 각성 한 사발

최진석의 새말새몸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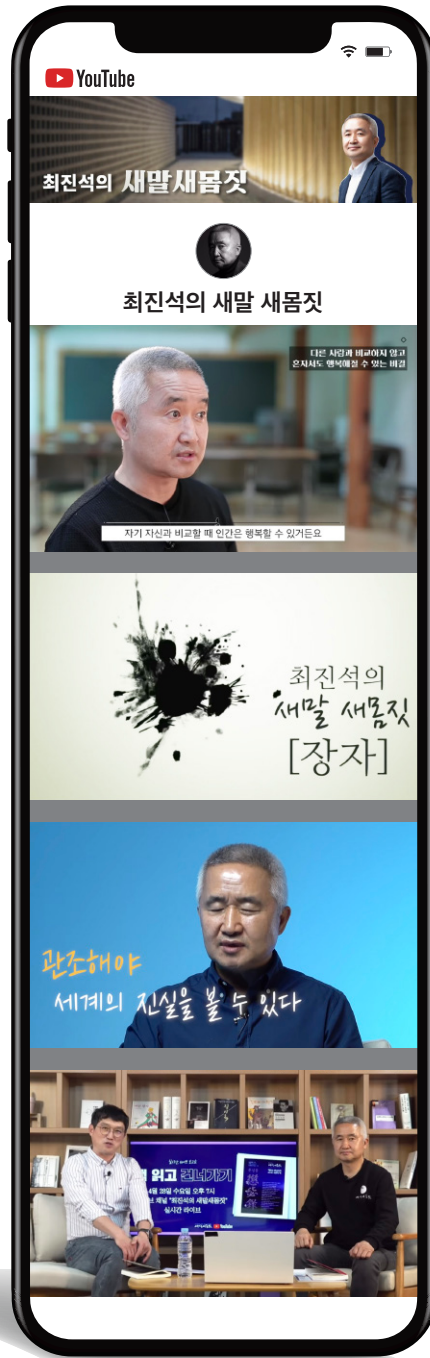
구독자 | 7.13만 명

인간은 멈추면 썩는 생명력의 실존으로
지금의 상태보다 나은 방향을 추구한다는
의식을 깨워 철학적 각성으로 이끈다.

우리 각자의 존재를 곳곳이 일으켜 세우는
젊은 훈장 같은 주인장의 속삭임과 외침이
죽비 혹은 목검같이 짹짹하게 꽃힌다
심오하되 쉽게 풀어 후련하다.

재생목록 - 나는 누구인가 / 생존 철학 /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한 1분 / 장자 철학 /
탁월한 사유의 시선 / 책 읽고 건너가기 등
살다 보면 문득 생기는 궁금증을 키워드로
다양한 하부 내용을 담고 있다.

»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사단법인 새말새몸짓 이사장
베이징대학교 대학원 도가철학 박사
저서: 탁월한 사유의 시선 / 나는 누구인가 /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 /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 경계에 흐르다



슬기로운 내면 소통 마음 근력 훈련, 뇌과학에 기반한 명상으로

김주환(Joohan Kim)의 내면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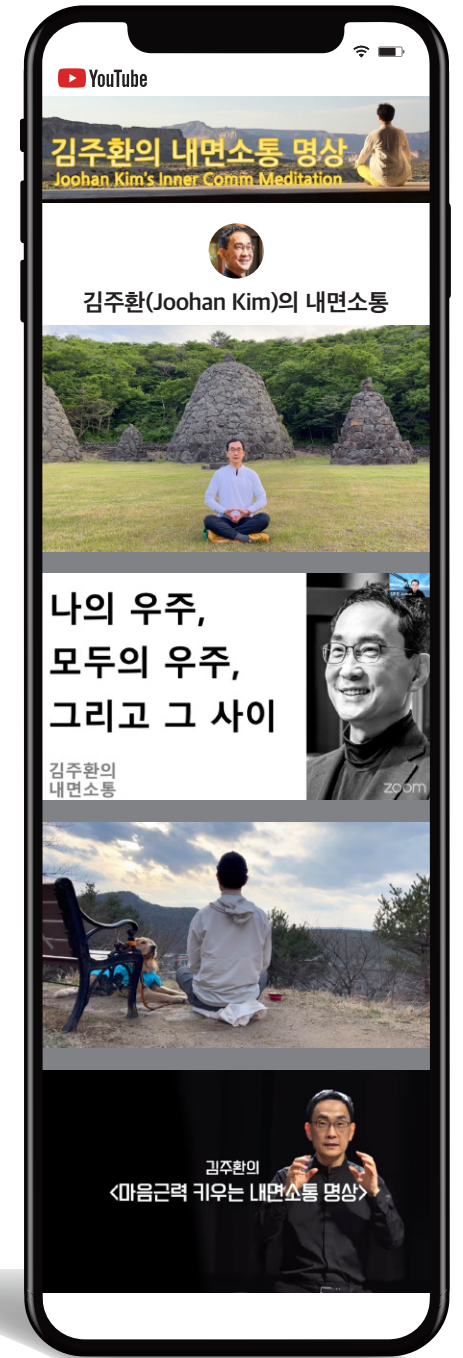
구독자 | 14.9만 명

나 → 타인 → 인류를 향해서 나아가길 바라
선한 영향력을 주도하는 지식기부 실천자다.
뇌과학 및 뇌영상 분석 기법을 이용해
내면 소통 및 명상 효과를 통해 영육을 이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 필요한 건 마음 근육이다.
대학에서 내면 소통, 마음 근력 키우기,
소통 능력, 회복탄력성 등을 강의해온
학자다운 접근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일상적인 마음 근력
훈련 차원의 명상을 지향한다.

재생목록 - 뇌신경계 이완 명상 /
고유감각 훈련 / 호흡훈련 / 수면 유도 명상 /
자기 긍정=타인 긍정 등이 있다.

» 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 학부교수,
연세홍보대학원장 역임
저서: 내면소통 / 회복탄력성 / 그릿 /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역서: 스피치의 정석 / 드라이브



정신과 의사 양재진, 양재웅 형제의 본격 심리 상담 전문 채널

▶ 양브로의 정신세계

구독자 | 59.7만 명

온라인으로 올라온 사연을 통해 시원하고 현실적 조언은 기본, 정신과 전문의의 쉽고 재밌는 심리 분석까지 이어지는 체감 지수 상한을 치는 따끈한 상담공간이다.

잠수 이별 vs 환승 이별, 어떤 게 최악일까 / 멘탈 관리법 등 귀에서 심장으로 바로 꽂히는 타이틀로 뭇 양떼(유튜버)들을 사로잡는다.

재생목록 - 전지적의사시점 / 시크릿토크 / 정신과의사의 드라마, 영화분석 / 직업탐구생활 / 연애상담소 / 나의 스트레스 시사회 등이 있다.



▶ 정신과 의사 양재진, 양재웅 형제의 정신과 상담 채널로 고민 상담 커뮤니티와 온라인 심리 상담을 다루는 '마인드카페'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지치고 힘들 때 부담 없이 클릭하는 힐링 아지트

▶ 김창옥TV

구독자 | 117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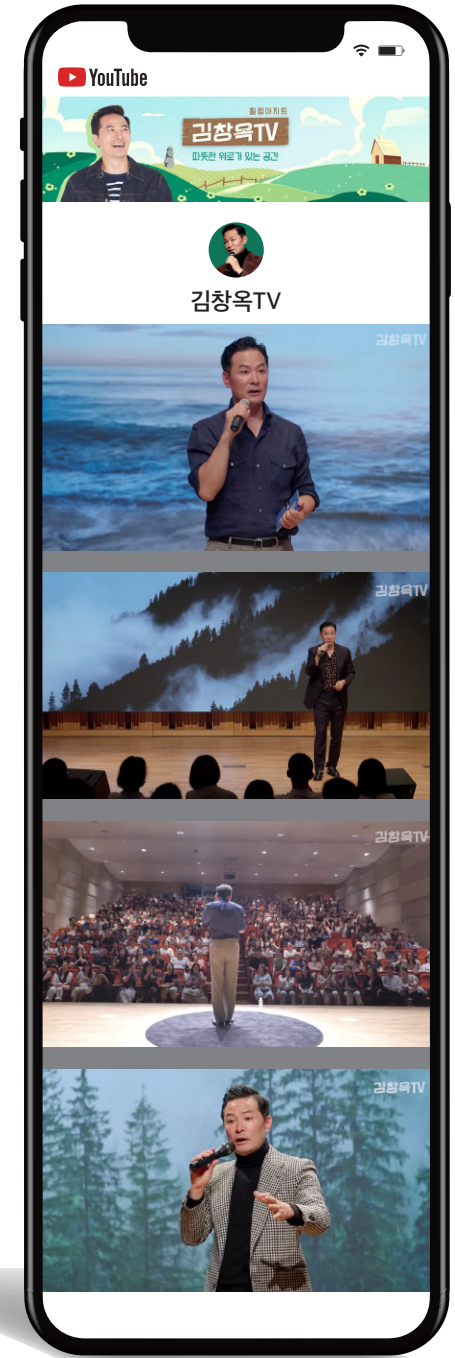
대한민국 대표강사 김창옥 교수의 유튜브 채널이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스스로 답을 찾는 공간이다.

특별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린 시절 경험과 가족 사례로 핵심 메시지를 부드럽게 유도하며 전하는 울림이 크고 길다. 대다수의 강의에서 웃음을 유발하지만 웃음 뒤에 따뜻 혹은 몽클이 있다. 여러 기관의 강의로 다져진 커리어로 동영상 업로드 양이 제법 많다.

재생목록 - 김창옥의 힐링아지트 / 김창옥의 숨 / 영화 들리나요 / 소그룹 강연 등이 있다.



▶ 성악을 전공한 이력이 있어 목소리도 대중 친화력이 있다. 저서: 나를 살게 하는 것들 / 유쾌한 소통의 법칙 67 /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등





똑똑한 문어 스토리

스토리쉐프가 차려내는 식탁
어족의 현자, 바다의 카멜레온

인체 신경계의 계절변화 실감은 뭉니 뭉니 해도 미각을 거쳐 온다. 어금니를 깨우는 가을 해산물 쫄깃한 식감은 하악골을 거쳐 뇌신경을 격하게 자극한다. 초가을 전어, 늦가을 문어라 한다. 연체동물 중 가장 높은 지능을 가졌으며 지식인의 상징인 먹물을 몸에 품고 있어 글월 문(文)이 들어간 문어(文魚)다. 문어에 대한 시대별 지역별 인식도 달라 동서양 음식문화에서 좋고 싫음이 극명하게 갈린다. 10월~4월 제철인 가을 문어 맛보기와 함께 동서 고금의 문어 이야기도 짚어본다.



높은 지능 덕에 대접받는 문어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사리분별 밝고 박식한 식자를 일러 “먹물 깨나 들었다.”라고 했다. 이 먹물이 상징하는 바, 식자의 이름을 붙여준 바다 생물이 있다. 바로 글월 문(文)자가 들어간 문어다.

먹물 덕에 양반 물고기 혹은 선비의 상징으로 꼽혔으며 고전에서도 예절과 충성심을 갖춘 동물로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켜왔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문어(文魚), 중국에서는 장어(章魚)라 불렀는데 둘 다 글 관련 한자이다. 청나라 문헌 <청일통지>엔 문어의 어원을 언급하며 글을 아는 사람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글 장(章), 클 거(巨)를 써서 장거라고도 불렀다. 이는 모두 문어가 글을 아는 사람처럼 똑똑하다는 데서 생긴 이름이다.

근거 있는 똑똑함, 생물학적 문어 지능

단추처럼 다닥다닥 한 빨판을 통해 맛도 볼 수 있으며 단순한 자극에도 카멜레온처럼 몸의 색을 바꾼다. 각 개체별 성격도 고유하게 있다. 몸통 내부의 먹물에는 멜라닌이 다량 포함되어 검은색을 띠며, 천적의 감각

을 교란시키는 물질이 있어 도주하거나 연막을 펼쳐야 할 때 수관을 통해 분사한다. 종족 보존을 위한 짝짓기도 아주 특별한데 놀랍도록 품위 있고 신사적이다. 맘에 드는 짝을 발견한 수컷 문어는 교미 전용 촉수로 자신의 정자주머니를 떼어내 암컷에게 건네고 받은 쪽은 그 대상이 맘에 들 경우 보관하다 알을 낳기 전에 수정시킨다. 수컷은 교미 후 죽거나 암컷에게 잡아먹히며, 암컷은 산란 후 수개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만 품다가 죽는다. 따라서 모든 문어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아가 되는 셈이다. 부모 자식 간에 얼굴 볼 일이 전혀 없다 보니 유전적으로 높은 지능이 아니었다면 멸종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애환조차 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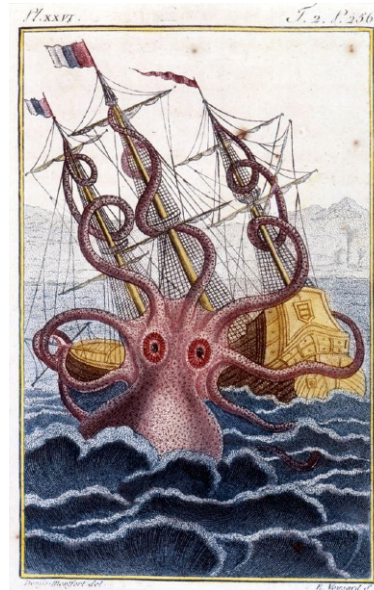
악마와 호색의 상징, 서양에선 극혐 식재료

서양에선 문어 이름을 지을 때 외양에만 초점을 맞춘 듯하다. 문어는 영어로 octopus며 octo(8)+pus(발), 8개의 발을 가진 연체동물이라는 뜻이다.

문어 관련 가장 오래된 자료는 기원전 크레타 문명의 토기로 그릇 전체에 문어가 그려져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크레타의 문어장식 항아리, 기원전1500년
(그리스 헤라클리온 고고학 박물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괴물 고르곤이나 노르웨이 해안에 서식하며 어선을 공격했다는 괴물 크라켄도 바로 문어다. 18세기 프랑스 연체동물학자 피에르 몽포르는 <거대 문어> 그림으로 유명하다. 배를 공격하는 이 문어 그림은 유럽인에게 문어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키웠다.

<거대 문어>
프랑스 연체동물학자 몽포르 작품, 1801년
(출처: wikipedia)

북유럽과 게르만족은 예로부터 문어를 바다괴물, 악마의 물고기(devil fish)라며 피하던 식재료였다. 특히 번식기면 수컷 생식기가 암컷의 외투강에 삽입되는 특징 때 문에 여타 바다 것들과는 달리 유난스레 이성을 밝히는 호색의 상징으로 여겼다. 게다가 물결한 삶은 처음 작용을 한다고 믿었다. 또한 어지간한 덩치의 상어나 고래를 제외한 최상위 포식자로 근접 물고기를 유인해 거의 놓치지 않고 잡아먹어 유혹자, 난폭 깡패, 조폭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주변 10대들에게 문어...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바로 나온 답이 우르슬라였다. 다름 아닌 디즈니 고전 애니 <인어공주>에서 나오는 사악한 여자 악당으로 칩칙한 푸른빛의 집채 방불 거대 문어다. 서구 문명의 오래된 부정적 이미지의 서사에서 탄생한 것일 터. 한편 일본에선 에로티시즘의 대상으로 비약한다. 에도시대 화가 호쿠사이가 그린 춘화에서 난잡한 문어가 등장한다. 망측스럽게도 한 여인이 문어 두 마리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다.

맛은 엄지 척, 영양은 멀티 - 문어의 미덕

단백질은 기본, 다양한 비타민과 철분, 미네랄이 풍부해 몸에 좋은 음식으로 손꼽힌다. 머리를 맑게 하고 보혈(補血) 효과가 있다는 옛 문헌의 기록도 있다. 쇠고기를 먹고 체한 데에는 문어대가리 삶은 물이 제일이라는 속설도 민간에 전해온다.

특히 타우린이 풍부해 간의 해독을 도와 피로 회복은 물론 시력과 신경계 기능 증진에 도움을 주며, 활력을 북돋아 주는 자양강장제로 환절기 체력 보충과 면역력 강화에 좋다.

또한 혈액 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억제해 동맥경화와 심장마비를 예방한다. 말린 문어는 피를 맑게 하고 지혈효과가 있어 미역과 함께 산후조리에 좋고, 문어의 먹물은 치질에 효과가 있다.



육류를 제긴 해물, 한중일 문어 대접

처음 맛 탕글, 중간 맛 쫄깃을 거쳐 씹힐 때 퍼지는 육즙의 품격이 독보적인 문어는 한중일 공히 고급 진 식재료다.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제철인 문어는 우리나라도 제사상, 혼례상, 기타 잔치상과 임금님 수라상에 필수였다. 경상도 해안지역의 제사상엔 가장 중요한 제수로 왼쪽 첫 줄에 배치된다. 생일잔치, 회갑연 등에 문어가 빠지면 잔치상이 아니라 여겼다. 혼례를 치른 후 사돈댁에 보내는 폐백음식에 포함되는 말린 문어오림은 봉황, 용 등의 모양을 내 가히 예술작품의 한자리 너끈하다.

<규합총서>엔 문어 관련 언급이 다음과 같이 있다.

'... 돼지고기같이 썰어 볶으면 그 맛이 깨끗하고 담담하며, 그 알은 머리, 배, 보혈에 귀한 약으로 토하고 설사하는 데 유익하다. 쇠고기 먹고 체한 데는 문어 대가리를 고아 먹으면 낫는다...'

탱글 쫄깃 vs 보들 사르르 - 동서양 다른 문어 맛

생굴이나 꽃게 등이 혀를 감고 돌며 희롱하는 맛이라면 문어의 핵심 미덕은 어금니 사이에서 자신의 육질로 최후 목 넘김 전까지 저항감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데 있다.



(왼쪽)
<폐백 봉황>
무형문화재 17호 이애섭 남도의례음식장
(출처: siminsori)

(오른쪽)
<어물새김> 문어포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식감 거른 김에 덧붙이자면 유독 동양 쌀 문화권에선 어금니 사이의 감각이 실로 세세하다. 쫄깃, 쫄득, 오독, 꼬들, 아삭...이 모두는 저작 영역의 어금니와 유관한 바, 심지어 일본에선 이런 식감 묘사용 의태, 의성어가 100가지 육박한다고 들었다. 그중 단연 으뜸은 뇌세포를 흔들어 깨우는 쫄깃 아니겠는가?

그런 연유로 우리나라에선 살짝 데쳐 초장에 찍어 먹는 문어숙회를 높이 치지만 서양에선 보들나긋하게 녹아 스미는 맛을 집요하게 추구해왔다.

문어다리의 촘촘한 근섬유 콜라겐은 장시간 끓이면 젤라틴으로 변해 조직이 부드러워진다. 장시간 저온조리로 사르르 녹아내리는 문어의 맛은 저항감으로 맛짱 뜨던 동양의 미식인들에겐 또 다른 세계다.

한국 - 한국인의 문어 사랑은 두말하면 입 아프다. 문어숙회는 기본, 문어연포탕, 문어볶음, 문어간장무침, 문어비빔밥 등과 함께 세계화로 인한 퓨전요리도 서양 요리에 접목하여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중국/대만/홍콩 - 우스개지만 다리 달린 것 중 책상, 날개 달린 것 중 비행기 빼고 모두 먹는다는 음식문화권이다 보니 문어의 인기야 말해 뭐하리. 기본 맛이 받쳐주는 만큼 복잡한 조리보다는 구이, 꼬치, 속성 양념볶음 등이 많다. 문어 삶은 물은 약재로도 쓰이는 만큼 국물이 중요한 짬뽕에 문어를 넣은 문어짬뽕도 인기 있다.



살짝 데쳐 초장에 찍어 먹는 문어숙회

일본 - 북유럽에서 외면하는 문어가 일본의 수입으로 인해 가격이 올라갈 정도로 전 세계 어획량의 2/3를 소비한다. 그런 만큼 문어요리 종류도 세계적이다. 튀겨낸 문어에 다시마 베이스의 담백한 일본식 소스에 버무려낸 요리로 해물판 탕수육 느낌의 문어 가라야게가 대표적이며 깔끔 담백한 문어 초절임 등 다양하다.

이탈리아 - 문어를 부드럽게 만든다고 믿는 탄닌 성분 때문에 문어 삶을 때 와인 코르크를 함께 넣는다. 같은 이유로 삶을 때 식초를 넣기도 하고 무로 문어를 때리거나 무를 갈아 표면에 문지른다. 이렇게 손질해 바질 잎 등 신선채소에 새콤 달콤 소스를 곁들여 샐러드로 먹기도 하고 파스타에 함께 볶아 먹기도 한다.

그리스 - 지중해 연안 어부들은 문어를 잡자마자 머리 부위를 잡아 바위에 수차례 패대기치고 문지르면 섬유 조직이 찢어지면서 부드러워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중해 바람과 햇볕에 말린 건조 문어는 별미 중의 별미다. 이렇게 손질된 문어를 노릇노릇 구워서 통통한 다리에 레몬즙을 뿌리고 칼로 잘라먹는다. 문어에 기대되는 쫄깃을 배반하고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부드러움에 신세계에 닿은 탄성이 절로 폭발한다.

스페인 - 세탁기와 비슷하게 생긴 통돌이에 문어를 넣어 빨래하듯 마구 돌린다. 그리스에서 바다 바위에 패대기치기 천천히 풀어져 보드레한 식감이 특징이며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갈리시아 지방의 유명한 뽀뽀(pulpo a feira)는 월계수 잎을 넣고 부드럽게 삶은 문어에 파프리카 가루, 암염과 올리브유를 뿌리고 감자를 곁들여 먹는 요리이다.

참고 자료
·아시아경제 조성관의 세계인문여행/전지영의 세계 음식이야기



일본 문어 가라야게 (출처: RecipeTin Japan)



이탈리아 문어 샐러드



그리스 문어요리 (출처: Real greek recipes)



돌곰네



문어주



문어가

장안의 문어요리 맛집

돌곰네

돌문어와 곰장어를 대표주자로 내세운 맛집이다. 궁합을 맞춰내는 해물, 톳과 김 미역으로 건강, 미용식 추구형 미식가들의 아지트이기도 하다.

명색이 문어 전문이므로 초장의 맛이 식도에 아로새겨져 다음을 부르는 명소다.

📍 서울 강남구 언주로146길 18 동현상가 지하 ☎ 0507-1440-2928

문어주

도봉 보건소 주변 강북의 맛집으로 웬만큼 알려진 문어 전문점이다. 문어 삼합, 문어 사합 등 문어 베이스에다 추가 응용한 몇 가지 메뉴로 젊은 층 입맛을 꼭 잡은 집이다.

📍 서울 도봉구 도봉로 133길 41 1층 ☎ 02-906-5201

문어가

일요일 제외 매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오픈한다. 돌문어, 문어 삼합, 수육이 인기다. 돌문어는 바로바로 삶아 한 접시 꼭 채워 나오며 푸짐하며 따듯하고 촉촉하다.

📍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77길 46-5 ☎ 0503-5798-0431

이수인의 심폐 확장 이슈 인지심리학으로 풀어보는 인사 업무 성과와 동기 적합성



한 해의 반환점을 넘긴 이번 가을호에서는
연초에 정했던 목표와 꿈의 점검 시간을 가져본다.

어떤 일을 도모하여 얻는 성취는
접근동기와 회피동기라는 두 가지 축에 의해 추동된다.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
두 종류 모두 각기 다른 관점에서 유용하다.

조직의 리더와 중간 관리자는 물론
각 개인의 심리적 동력을 돌우어
각자의 성취 및 조직의 성과를 위해 리셋하는 구간
다시 신발 끈을 매고 파이팅!!

글_ 이재향(칼럼니스트)

우리는 이수그룹이라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 누군가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이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관계의 중심점에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안배하여
수행해 가는 한 개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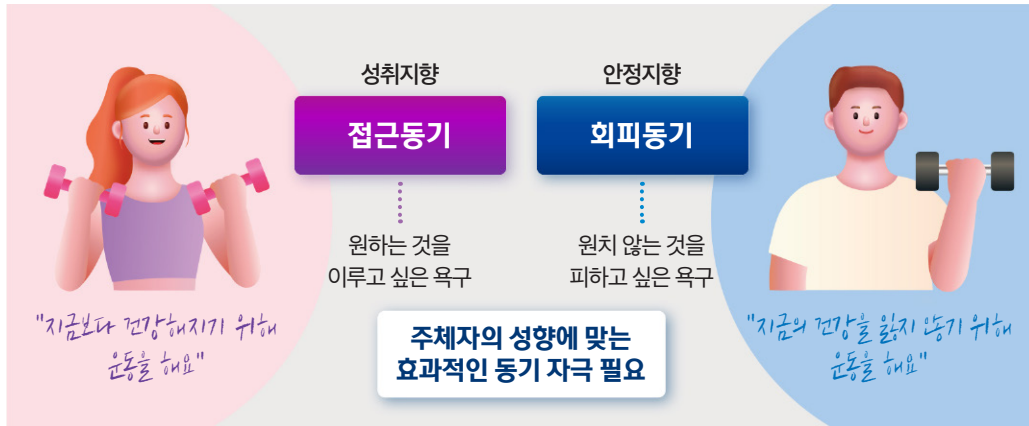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한
무언가 성취하려는 크고 작은 목표가 있고
하루하루 행보는 그것을 향해 있다.

그런 정체성을 차분히 점검하며
자신이 가진 꿈 목표 임무 숙제 등을 짚어본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만족스럽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와 관련하여 인지심리학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겉으로 보기에 운동을 한다는 동일한 행동이라도 접근동기나, 회피동기나에 따라 행동의 이유가 다른 것이다.

원가를 하게 하는 힘, 접근동기 회피동기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생존 토대인 의식주에 더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망, 하고 싶지 않은 욕망의 결과로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각 자녀교육을 포함해 자신에 이르기까지 어떤 성취와 성과를 목표로 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적절히 잘 선택해야 한다. 이때 무언가를 선택할 의향에 자극이 되는 것이 동기다. 동기라는 의미의 영어 Motivation은 욕구, 자극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즉,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혹은 하고 싶지 않은 의향의 원인, 계기를 의미한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욕망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바탕이 되는 동기를 선명하게 분류한 바 있다. 컬럼비아대 동기과학센터 소장 토리 히긴스 교수는 접근동기와 회피동기로 구분했다.

이는 생각과 에너지, 행동에 동력을 제공한다. 원하는 걸 갖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욕망을 성취하고자 어떤 일을 실행하는 동기가 접근동기다.

그리고 회피동기는 하고 싶지 않은 것, 두려워하는 것을 막아내고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동기이다. 그의 저서 <어떻게 의욕을 끌어낼 것인가>에 언급된 성취/안정지향과도 개념상 같은 맥락이다.

가령 지금보다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한다=접근동기(성취지향), 지금의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운동을 한다=회피동기(안정지향)다.

표면적으로 동일한 행동이라도 어떤 동기나에 따라 행동 이유가 다른 건 주체자의 성향 때문이다.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건 성취감과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효과적으로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한 효율성이라 하겠다. 특히 대중을 향한 메시지의 파워를 의식해야 하는 마케팅이나 광고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효과적인 설득, 공감, 상품 영업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적합한 동기 자극이 필요하다.

대상 따라 다른 메시지? 동기 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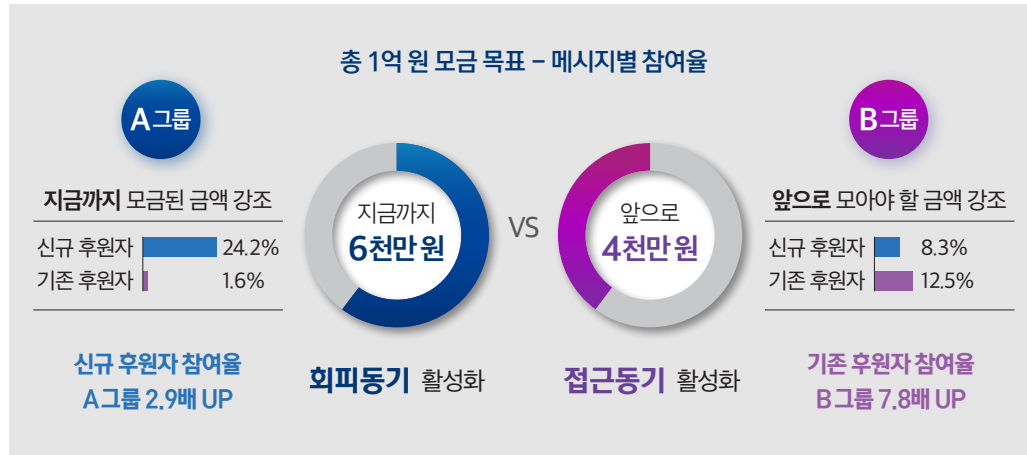
사실 접근/회피동기 이론이 보편화되기 훨씬 전부터 그 개념을 적용한 분야는 바로 보험업계다. 수십 년간 독보적 스테디셀러는 <은퇴설계보험>으로 행복한 노년을 원한다면 바로 이거라는 접근동기형 마케팅이 주효했다. 반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실손실비보험>은 내일이라도 당장 일어날 수 있는 미지의 불행을 가정해 지금부터 매일 소액을 납입하여 그 사고에 대비하라는 불안감에 소구하며 회피동기를 자극해 인기상품이 되었다.

컬럼비아대 연구에 의하면, 구성원의 업무 숙련도 및 몰입도(=의지)에 따라 접근/회피동기를 달리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여기 등산 중인 두 사람이 있다. 시작은 의욕적이었으나 둘 다 중간에 포기하려 한다. 이때 정상에 향한 의지 강도에 따라 달리 응해야 한다. 몰입도가 약한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올라온 거리를 강조함으로써 현재까지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않으려는 회피동기를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정상에 오르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남은 거리를 강조함으로써 목표를 성취하려는 접근동기를 자극해야 한다. 동기 적합성을 고려한 리더의 독려는 성과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단순 명료한 사례이다.



동기 적합성을 고려한 리더의 독려는 성과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메시지 강조 포인트에 따라 모금 참여율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나라는 단수의 자아는 좋은 걸 더 갖길 원하는 자아인 반면 우리라는 복수의 자아는 나쁜 걸 막아내고 불행을 피하는 일에 더 치중한다.

성균관대 구민정 교수는 국제 NGO와 함께 <에이즈 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통해 실험을 진행했다. 모금 동참을 호소하는 편지에 수신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강조 포인트를 다르게 보냈다.

- 총 모금 목표액 - 1억 (모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
- A 그룹 - 지금까지 모금된 금액 <6천만 원> 강조
- B 그룹 - 앞으로 모아야 할 금액 <4천만 원> 강조

그 결과, 후원활동에 동참하지 않았던 신규 후원자 참여율은 A(24.2%), B(8.3%)로 A가 B보다 2.9배 높았다. 반대로 이미 후원활동에 동참해 왔던 기존 후원자 참여율은 A(1.6%), B(12.5%)로 B가 A보다 7.8배 높았다.

A와 B는 사실상 동일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메시지 강조 포인트에 따라 모금 참여율에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실험은 소통과 설득은 물론 마케팅, 광고, 인사관리, 교육 등의 영역에서 동기 적합성과 관련된 좋은 사례이며, 접근/회피 동기 적용에 유의미한 데이터로 인용된다.

나 vs 우리, 두 개의 자아와 동기 적합성

단수인 나와 복수인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체가 다르다. 따라서 접근/회피동기 적용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다음 두 사례는 두 가지 자아와 접근/회피동기 유관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사례 1]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혼자 온 고객에게는 해당 화장품 사용 시 얼마나 예뻐지는가에 어필했을 때 구매력이 훨씬 높았다. 반면 여럿이 온 고객에게는 동일 화장품의 특성 중 노화 방지 효과 및 트러블 진정 기능에 대해 어필했을 때 판매 실적에 직접적인 효과가 컸다.

[사례 2] 자동차 A, B가 있다. A는 연비, 출력 등 성능이 우수하고 B는 성능이 낮지만 내비게이션과 선루프가 있다.

이때 가족을 위한 구매자, 즉 복수 자아(우리)가 사용 주체일 때 A를 택한다. 안전과 사고 방지라는 회피동기가 작동한 때문이다. 단수 자아(나)를 위한 구매자는 B를 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이는 즐겁고 행복한 요소인 접근동기가 작동한 결과이다.

"당신은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A

연비, 출력 등 성능 우수

우리 (가족을 위한 구매자)

안전과 사고 방지 - 회피동기 작동

A 구매



B

성능 낮지만 내비게이션과 선루프

나

즐겁고 행복한 요소 - 접근동기 작동

B 구매

접근동기 자아가 작동하는 나, 회피동기 자아가 작동하는 우리, 두 가지 자아의 속성을 알고 상품을 어필해야 한다.

심리학적으로 <나>라는 단수의 자아는 좋은 걸 더 갖길 원하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자아다. 반면 <우리>라는 복수의 자아는 좋은 걸 취하는 데 대한 관심보다 나쁜 걸 막아내고 불행을 피하는 일에 더 치중한다. 따라서 인지심리학자들은 나=접근동기의 자아, 우리=회피동기의 자아로 분류한다. 이 두 가지 자아의 속성을 알고 상품을 어필할 때 판매 성과가 현격히 갈린다. 또한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맡길 때 개인이나 팀 전원이나 결정해야 할 리더에게 시사점이 크다.

물리적 공간과도 밀접한 접근/회피동기

미네소타대학 칼슨경영대학원의 조앤 마이아스레비 교수 연구진은 같은 공간 내에서 천장의 높이를 조절해 가며 어떤 일을 할 때 성과를 더 잘 내는지를

관찰한 실험을 통해 매우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높은 천장 공간에서는 자유로운 생각과 폭넓은 사고를 요하는 창의적인 일을, 천장이 낮은 공간에서는 세밀하고 꼼꼼한 일을 더 잘 수행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인간은 동일한 바닥면적이라도 천장이 높으면 그 공간을 넓게, 낮으면 좁게 인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요한 건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접근동기와 회피동기에 의해 더욱 벌어진다.는 것이다.

욕구, 공간 크기, 일의 성격, 이 3박자가 맞을 때 일의 성과가 좋게 나타난다.

- 높은 천장+넓은 공간 → 창의적 아이디어 /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 일 - 접근동기
- 낮은 천장+좁은 공간 → 실수하면 안 되는 꼼꼼하고 정교한 일 - 회피동기



일의 성과를 위해 조직 구성원의 동기와 환경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영문도 모른 채 결과가 저조한 경우, 조직 구성원의 동기와 환경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감일이 언제라고? 시간과 동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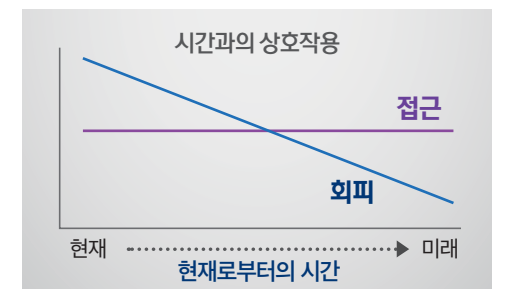
조직의 중간관리자나 기업의 리더는 구성원들이 일 사불란 한마음으로 협동하기 원한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독창성 반짝이는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협동과 독창성의 균형을 위해 리더는 무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중요한 변수가 바로 시간이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X축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시간이다. 장기전으로 가야 하는 일이라면 접근동기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는 일은 회피동기를 이용해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걸 가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장기전으로 가야 하는 일 → 접근동기 효과적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회피동기 효과적



시간과 동기를 적용하면 리더는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동기의 적용이 알맞게 이뤄지지 않으면 팀의 의욕은 가라앉게 된다.

열심히 할수록 꼬인다? - 호환성 점검 신호

기업의 크고 작은 단위 조직에서 위에 언급한 접근/회피동기를 간과하거나 반대로 적용한 경우가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할 팀에 결과가 저조하다고 정규 보너스를 삭감한다거나 반대로 회계업무 등 가시적 성과가 명확한 일을 끝낼 때마다 인센티브를 약속한다면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런 상황은 논문 리더십의 전형이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이와 같이 엉뚱한 동기를 자극하는 것을 **동기의 호환성이 무너진 경우**라고 한다. 즉 접근동기와 회피동기의 적용이 알맞게 이뤄지지 않아 팀의 의욕은 가라앉게 되고 심지어 일을 열심히 할수록 결과가 더 꼬이게 된다. 리더는 원인을 모른 채 좌절하게 되고 조직은 슬럼프에 빠진다. 이때가 바로 동기의 호환성을 점검해야 할 때이다.

기업의 엔진은 사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기업의 핵심주체는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시너지로 전에 없던 것을 창출한 결과, 지구촌이 이만큼 알록달록 해졌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금언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기에 인사는 더 이상 인사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의 관리자 및 리더는 구성원을 잘 아는 게 우선이며 동기 적합성에 입각한 업무 배치의 안목이 더해져야 한다. 접근동기만 강조하면 가시적이지 않은 막연한 목표로 인해 피로도가 올라가고 회피동기가 만연하면 창의적, 혁신적 도약보다 수비적 패러다임에 갇혀 조직의 결속력이 느슨해진다. 개인의 삶이 그러하듯 조직에서도 **조화와 균형**은 매우 긴요한 철학적 바탕이 된다.



좋은 리더는 접근동기와 회피동기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설계자이다.

리더십의 공구상자 - 인지심리학

리더가 조직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안배하는 역량에 있으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그 <어떻게>라는 상황별 응용 도구가 담긴 인지심리학은 리더십의 공구상자라 할 수 있다.

이수그룹 내에 몸담고 있는 각자는 잠재적 리더이다. 또한 내면적으로 보자면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주도해 가는 리더이기도 하다. 개인, 혹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동기 점검이 필요할 때 인지심리학 관련 서적 몇 권은 내부수선이 필요할 때 좋은 도구가 된다. 욕망하는 것은 멋지게 취하고 원치 않는 것은 흉하지 않게 피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지도를 그려가는데 요긴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인 심리학 관련 추천도서



‘졸지 말고 자신 있게!’ 일하게 하는 리더십
김용원
리딩마인드 | 2023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김경일
저녁달 | 2022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김경일
진성북스 | 2015



퓨처 셀프
벤저민 하디 (최은아 譯)
상상스퀘어 | 2023



어떻게 의욕을 끌어낼 것인가
토리 히긴스,
하이드리 그랜트 할버슨 共著 (강유리 譯)
한국경제신문 | 2014

참고 자료

- SERICEO / 인지심리학, 리더에게 말을 걸다
- NAVER Blog / 접근동기와 회피동기를 아시나요?



김홍석, <속옷을 뒤집어 입은 양복과 치마를 모자로 쓴 드레스> 전시 전경, 스페이스 이수, 2023

Photo: Seungmann Park

흔들고 헝클어 다른 세계로 김홍석 개인전

이수그룹의 문화예술 공간 ‘스페이스 이수’는 ‘23년 8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김홍석 개인전 <속옷을 뒤집어 입은 양복과 치마를 모자로 쓴 드레스>를 개최한다. 이번 개인전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던 미술의 형상이나 개념을 전복하는 작업들을 다양한 형식과 매체로 제시함으로써 미술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새로운 사유와 상상들을 촉발하고자 한다. 극사실 인체 조각,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텍스트, 설치, 추상 조각, 회화 등 다채로운 매체의 작업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는 ‘뒤엉킴(entanglement)’이란 개념으로 우리 시대의 복잡한 다면성을 반영하고 감각의 미술, 사유의 미술, 근대성, 현대성, 미의식 등 모든 것이 뒤엉킨 오늘날 미술의 한 단면을 이야기한다.

A suit with
underwear
on the outside
and a dress
with the
skirt worn
as a hat

속옷을 뒤집어 입은 양복과 치마를 모자로 쓴 드레스

지독하게 비틀어보는 詩的 메타포

다소 길고 엉뚱해 보이는 전시 제목은 신작 페인팅 <사군자-231234>(2023)를 두고 김홍석 작가가 “마치 속옷을 뒤집어 입은 양복이거나 치마를 모자로 쓴 드레스와 같은 형국”이라고 묘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옷의 앞과 뒤나 겉과 속을 뒤집어 입은 정도가 아니라 속옷을 뒤집어 입으니 양복과 같고 치마를 모자처럼 쓰니 드레스가 되었다는 식으로 곰곰이 떠올려 보려고 해도 완전히 그려지지 않는 기묘한 복장을 묘사한다.



김홍석, <사군자-231234> 2023, acrylic, modeling paste, 78×88cm each

해체된 질서 & 부서진 군자 - 뒤영킴

'사군자(四君子)'라는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페인팅은 학식과 인품, 덕이 높은 사람들 곧 군자를 비유하는 식물인 매란국죽(梅蘭菊竹)을 그린 것이다. 하지만 사군자의 유구한 역사는 이 작업에서 모델링 페이스트(modeling paste)와 아크릴 물감을 두껍게 발랐다가 다시 표면을 나이프로 저며낸 모습으로 그 지위를 단숨에 잃는다. 거기다 이 그림은 작가 자신이 그린 게 아니라 '코스노 믹(Kosnoh Mig)'이라는 작가의 그림을 자신의 전시에 초대한 것뿐이라며 작품의 원본성 문제까지 거론한다. 결국 <사군자-231234>는 역사적인 것도 현대적인 것도 아닌, 동양식도 서양식도 아닌, 전문가의 것도 아마추어의 것도 아닌, 원작자의 것도 빌려온 작가의 것도 아닌, 서로 구분할 수 없이 뒤영킴 대로 뒤영킴 복장을 걸친 듯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열린 결말의 이야기 속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현실에 대해 할 말을 잃고 침묵하는 평범한 사람들 <침묵의 고독>, 작가의 스크립트에 따라 감각과 사유에 관한 논쟁을 펼치는 철학교수와 성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대화>, 관람객의 주먹이나 머리를 넣어도 좋다고 제안하는 스티로폼 조각상들 <완전한 미완성-손과 머리를 넣을 수 있는 조각>, 불완전성을 찬미하는 소리 없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 <완전한 미완성-두 가수>, 김홍석 작가에 의해 이번 전시에 초대되었다는 미지의 미술가 <사군자-231234>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들은 우리가 평범하다고 믿는 것, 아름답다고 믿는 것, 완성이라고 믿는 것, 진짜라고 믿는 것, 전통이라고 믿는 것, 예술이라고 믿는 것 등 집단적 합의와 신념 체계, 학습된 관습을 하나하나 뒤흔들기 위한 정교한 장치처럼 구성된다.

김홍석 작가는 진짜와 가짜를 교묘하게 섞거나 완성과 미완성의 판단을 유보하거나 창작과 차용의 경계를 흐리거나 하는 식으로 창작자로서의 신화적 작가상까지도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며 계속해서 질문을 주고 받는 열린 결말의 이야기 속으로 관람객을 초대한다.



김홍석, <침묵의 고독-가정주부> 2019, resin, foam rubber, clothes, fabric, 110(h)×94(w)×105(d)cm



김홍석, <침묵의 고독-미술사> 2019, resin, foam rubber, clothes, fabric, 94(h)×108(w)×90(d)cm

개념을 무너뜨린 개념미술가

김홍석(1964~)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1990년대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수학했다.

그는 개념미술가로 알려져 있으며 서구 모더니티의 유입 후 한국의 사회, 정치, 문화적 이슈를 번역과 차용으로 소재화하여 조각, 회화, 영상, 퍼포먼스, 설치 등의 매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비판한다. 그의 작업은 우회적인 비판과 유희를 담아내기도 하며 예술 안의 위계와 노동의 윤리에 대해 고찰한다.

주요 전시로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플라토, 아트선재센터, 워커아트센터, 도쿄 모리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김홍석,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대화> 2021, sound installation, 2×loudspeakers, one desk, file: mp3, miniature: polymer clay, a priest: 6×5×12.5(h)cm, a professor of philosophy: 11.5×12×10(h)cm



(위) 김홍석, <완전한 미완성-손과 머리를 넣을 수 있는 조각> 2015-2023, styrofoam, resin, plaster, rebar, 177(h)×91(w)×68(d)cm
(아래) 김홍석, <완전한 미완성-두 가수> 2020-2023, bronze, 170(h)×45.5(w)×40(d)cm, 160(h)×28(w)×36(d)cm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이수가족이 정성껏 채색해 주신 컬러링 응모작을 소개합니다.
작은 행복, 컬러링 테라피 코너에 앞으로도 많이 응모해 주세요.



김종식 기감
(이수화학 AB생산파트)



송재우 기선
(이수페타시스 공무팀 공무파트)



안태성 차장
(주)이수 오픈이노베이션팀



이민희 과장
(이수건설 플랜트기술팀)



이정환 차장
(이수스페셜티케미칼 프로젝트팀)



임승훈 과장
(이수화학 총무파트)

이수가족을 위한 아트 힐링 컬러링 테라피

컬러링 북은 선으로 그린 그림이나 도안을 모아 엮은 책으로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원하는 색깔로 그림을 채워가노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려 정서적인 안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보 <ISU>는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선사할 컬러링 코너를 연재합니다. 컬러링을 마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 방법



컬러링을 한다



인증샷을 찍는다



사진을 전송한다

보내실 곳 | 카카오톡 ID : creativekeym / 이메일 : hjkim1@isu.co.kr

2023년 여름호 당첨자 (※가나다순)

김종식 기감(이수화학 AB생산파트)
송재우 기선(이수페타시스 공무팀 공무파트)
안태성 차장(주)이수 오픈이노베이션팀)
이민희 과장(이수건설 플랜트기술팀)
이정환 차장(이수스페셜티케미컬 프로젝트팀)
임승훈 과장(이수화학 총무파트)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겨울호 원고 마감은 12월 15일입니다.



WORKUP

클라우드 HR솔루션



워크업 홈페이지



워크업 미리보기



ISU 이수시스템

02.6494.2998 | www.workup.plus